

광주은행 '주52시간 근무도입' 검토중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품질관리, 유지관리, 조사설계 각 분야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고 관내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에 적용된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시공실태를 점검했다.

이번주 의견 조율...수·금요일 PC오프제 시행 “은행권 내년부터 시행...아직 결정되지않았다”

광주은행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B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번주 중 초기 협의에 나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은행은 수요일과 금요일에만 7시에 PC가 꺼지는 PC오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퇴근시간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시범이나 정식시행이나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간 단축과 업무 능력이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특례업종에서 빠져서 내년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에 따라 일부 금융권도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BNK그룹의 BNK부산은행이 주 52시

간 근무 조기 시행에 나선 가운데, BNK 부산은행도 시범실시에 나섰다. 대구은행도 7월 (시범)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지방은행들은 하반기 이후 하나 둘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은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도입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퇴근시간이 오후 6시로 앞당겨졌으며, 퇴근시간에 맞춰 PC가 꺼지도록 했다.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오전과 오후 각 2시간 동안 사적 업무 처리는 피하고 자기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집중 근무제도 도입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업문화 재고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자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같은 BNK금융그룹의 계열사인 만큼 같은 내용으로 실시중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부산은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기퇴근제와 집중 근무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며 “7월 1일부터는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도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나선다.

단 시범적으로 시행할지, 바로 정식시행에 나설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는 매주 수요일인 가정의 날에는 6시 30분, 평일에는 7시에 PC가 꺼지는 PC오프제를 시행중이다. 집중근무제 실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119개 시설물 신기술공법 실태 점검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현장 적용·사후실태 조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균)는 품질관리, 유지관리, 조사설계 각 분야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고 관내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에 적용된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시공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시공된 119개 시설물 25개 공법에 대해 지난 5월부터 23일 동안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누수, 박리, 박락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36곳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조치를 통해 연내 보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공법별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해 향후 신기술 및 특허공법 설계 반영을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이미 지난해 다년간 축적된 분석데이터를 토대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법 공사감독 참고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신기술공법 실태 점검 사례 또한 공사감독 업무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본부장은 “신기술 및 특허공법은 다각면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공법별 현장 적용성과 사후실태를 점검해 신기술 및 특허공법 관리의 선진화를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한전, EHS경영방침 실천 대회

350여명 참석... 안전관리책임자 워크숍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19일 본사강당에서 전국사업소 350여명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사 안전관리책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김종갑 사장의 EHS ‘Environment(환경), Health(보건) & Safety(안전)’ 경영방침 실천을 결의하고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날 워크숍은 다양한 안전의식 고취 행사를 시작으로 EHS 경영방침 실천

결의, 안전관리 유공직원 표창, 도급자 사망사고 50% 감소대책 발표, 추락·감전사고 예방대책 토론 등 안전문화 확산 및 재해예방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전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김희천 관리본부장은 “EHS는 경영의 기본이며,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장의 경영철학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공유하고 실천토록 하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은 19일 본사강당에서 전국사업소 350여명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사 안전관리책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한국전력은 6~7월을 ‘노·사 합동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으로 정해 여름철 특성에 맞는 안전지도, 안전

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 행사를 집중 시행하여 여름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미애 기자

유플러스 경력 단절 여성 시간선택제 사원 특별채용

LG유플러스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 선택 근무가 가능한 ‘시간선택제 영입전문인재’를 특별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가사 활동 시간을 고려해 원하는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이달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LG유플러스 채용 사이트(recruit.lguplu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 4월 은행권 가계대출 늘었다

기업대출 612억 전년보다 1,355억 감소

■한은 광주전남본부 ‘4월 지역금융권 여수신 동향’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비은행금융취급기관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2018년 4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 총

여수는 985억원으로 전년(1,501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업대출은 612억원으로 전년 1,355억원보다 줄었으나, 가계대출은 2,243억원으로 전년 64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수는 2,484억원으로 전년 2,692억원보다 증가폭이 둔화됐다.

/서미애 기자

이 중 기업대출은 1795억원으로 전년 58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가계대출은 755억원으로 전년 1,584억원보다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4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1조3,204억원으로 전월 4,083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예금은행은 요구불예금이 확대된 가운데 지방정부 교부금 유입 등으로 정기에 금도 늘어나면서 전월(-1,532억원)감소에서 증가(7,045억원)로 전환됐다.

종교 ‘소득 납부’ 신청받는다

광주국세청, 내달 2일까지... 납세 편의 제공

광주지방국세청은 7월2일까지 종교인 소득에 대한 반기별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된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거나 행정직원들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할 때 상시근무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반기별 납부는 매년 7월과 1월 2차례 가능하다.

매월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종교인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1일까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거나 팩스·우편·방문 신청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하면 된다.

/서미애 기자

홈플러스 “프리미엄 와인 1만원대 판매”

홈플러스는 세계 유명 산지의 프리미엄 와인을 1만 원대에 선보이는 ‘와인 디스커버리’ 시리즈를 전국 135개 홈플러스 주요 매장에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년간 와인 소비자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프랑스, 미국, 칠레, 호주 등 4개국 와인을 선별했다.

4개국 와인 중에서도 국내에 잘 알려진 프리미엄급 와인의 세컨드 브랜드 제품과 베스트 셀러 브랜드의 프리미엄 라인 제품으로 이번 시리즈를 구성했다.

2층주택, 전체 수리했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1억1000만원~~
-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6400만원
H. 010-6834-7400

